

**농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 본회 방문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
관련 본회 입장 전달**



본회(회장 오세울)는 지난 7월 22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안' 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본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협회 의견을 충분히 귀담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울 회장을 비롯해 연진희 중계분과위원장, 김태환 본회 감사, 전종귀 중계분과위원회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종축의 경우, 그 공급된 종축이 종축으로서 제대로 혈통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그 공급업체가 아닌 제3의 독립된 기관에서 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일로 모든 종축에 있어서 종축 등록 및 검정은 공공기관 또는 지정된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부여된 권한을 가져야 함' 을 강조했다.

**채식의 날 운영, 복날에 닭고기 못 먹게 하는
서울시 상대 강력 항의**

박원순 서울시장 공식사과, 닭고기 소비홍보 적극 추진키로

본회는 말복(8/12)을 하루 앞두고 '아직도 복날에 닭과 개를 드시나요?' 라는 문구를 삽입한 홍보물을 내걸고 시민을 대상으로 채소국(채개장)을 나눠준 서



울시(시장 박원순)를 상대로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또한, 매주 '채식의 날'을 운영, 산하기관을 통한 육식 배척, 특히 서울을 채식도시로 만드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있어 닭고기 소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양계관련단체 및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손잡고 강력 항의 했다. 그 결과 양계관련단체 및 축산관련단체는 박원순 시장과 지난 15일 서울시청 한 식당에서 긴급 회동하고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받고 앞으로 서울시가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 서울시는 우선 서울시 관계기관, 단체급식에 닭고기 소비를 확대키로 했으며 다가오는 추석과 설 명절 등에 서울시 홍보대사와 서울광장에서 대대적인 닭고기 소비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닭고기 소비홍보를 하기로 했으며 중국, 일본 등 서울시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닭고기 여행상품을 연구개발 및 확대하여 국내 양계농가를 적극 돕기로 약속하였다.

조역동 광주시장에게 감사패 전달

양계산업 발전 및 SI 방역 노고에 감사의 뜻 전달

본회는 지난 18일 조역동 광주시장(경기도)에게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오세울 회장은 감사패 전달을 통해 "광주시가 고향



원성 시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양계농가의 경영안정화 및 경

쟁력 강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감사히 여겨 양계인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03년 시가 5차례 발생했으나 광주지역은 단 한차례의 발생도 없었으며, 특히 조역동 시장이 부임한 2006년 이래 인접지역(이천, 여주, 용인, 성남 등)까지 시가 확산되었을 때에도 출입구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 등 적극적 방역대책으로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역동 시장은 전국 최초 무인유통 계란자판기 개발과 1일 최대 100만개를 취급할 수 있는 계란집하장 시설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계기반 조성 및 품질향상에도 적극 힘쓰고 있다. 조 시장은 "앞으로도 양계산업이 국민의 생존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량산업으로써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 국회토론회 계열업체 견제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 필요

본회는 지난 7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본회 이흥재 부회장이 주제발표(농협의 육계산업 활성화 방안)를 하였으며 김정주 명예교수(건국대학교)



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종구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영찬 교수(서울대학교), 우병준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수 부장(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오세진 대표(대흥농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국내 계열화 사업은 대부분 기업형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협동조합형 계열화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계열화 사업 방식으로 불공정계약이 사라지고 계열화 업체와 농가간 서로 윈윈이 되길 기대해 본다(본지 116쪽 참조).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 알관련 용어 정립으로 혼선 최소화, 과학적 기반 토대 기준규격 설정으로 산업 활성화 기대



본회는 지난 10~11일 양일간 충북 청풍리조트에서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 변성근 사무관(축산물 중 알가공품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축산물품질평가원 연구개발팀 김동준 과장(파각란 판정기준 및 파각란 발생현황),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석 본부장(난가공산업 활성화 방안)이 주제 발표를 하였으며 계란연구회 이상진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본회 채란분과위원회 이상호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안영기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영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계란자조금 사업 및 거출율 향상 방안(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김종준 부국장), 양계농가에서 꼭 챙겨야 하는 세무정보(진일회계법인 임기완 세무사), AI 차단방역 및 산란계 마이코플라즈마(MS) 발생 대책(반석가금진료연구소 손영호 소장)에 대한 농가 교육도 진행되었다(본지 119쪽 참조).

본회 오봉국 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책 출간 '꿈을 이루며 살아온 나의 인생 여정'이란 아내 추모책 발간



본회 오봉국 고문(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은 지난 9일 아내가 하늘나라로 간 1주기를 맞아 '꿈을 이루며 살아온 나의 인생 여정'이라는 책을 출간(저자 故 이춘자 여사)했다. 아내와 함께 80평생을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생전에 아내가 틈틈이 기록하여 남겨 놓은 노트를 책으로 엮었다. 저자의 출생부터 6.25사변과 부산 피난 생활, 결혼 후 남편의 해외 유학 생활 중 남편과 자식을 위해 기도의 삶을 살아온 시간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오봉국 고문은 "그 헌신적인 삶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고 한 권의 책이 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침이 되도록 들려주고 싶어서 저자의 글을 책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회장동정



◀ 오세을 회장

- 8. 5 본회 회장단 회의
- 8. 6 2015년도 제2차 대표자 회의
해남군수 면담
- 8. 7 광복 70년, 농림업 70년 농업농촌 사진전
- 8. 10 2015 전국 산란계농가 교육 및 토론회
- 8. 13 (사)축산식품안전발전협의회 출범식
한국4-H본부 글로벌 진출 1주년 기념식
- 8. 19 2015한국국제축산박람회 단체장 회의
- 8. 27 AI 방역체계 개선방안 관련 생산자 단체장 회의

정정보도

본지 8월호 본회소식(p152) 내용 중 정정합니다. 흥성사랑학회에 장학금 기탁 소식과 관련 흥성중계지부 편도 연 지부장(전, 지부장)을 '이병일 지부장'으로 정정합니다.

안 내

본지는 대한양계협회 회원지로서 본회 회원의 보다 많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회원분들의 경조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회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 화 : 070-4263-9735
팩 스 : 02-588-7655
이메일 : enani85@naver.com